

<10월에 드리는 말라위 선교편지>

무더운 날씨속에서 건기의 한가운데에서 반가운 빗소식이 있어서 나름 기대를 했습니다. 그 기대도 잠깐 엄청난 천둥 번개를 동반하여 어느 한가정식수 5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현재 집짓기 사역을

하고 있는 분다마을에서도 잠을 자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머리와 팔에 골절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말라위의 집들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기가 지나면 없어 지거나 폭우와 번개가 동반하면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일위기와 외환위기로 인하여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휘발유를 사려는 자동차 운전자들로 길거리마다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 이제는 잠시 사역도 한 템포를 늦추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 100채 집짓기 사역



말라위의 도로사정은 한국의 60,70년대에 해당합니다. 도시 한가운데가 먼지로 앞이 보이지 않고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아마 3년째 아니 그 이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운 곳곳에도 집이나 상가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옛날의 한국처럼 공장을 지어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개인적으로 공사를 하는 건설현장이 날로 늘어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폭우와 번개로 피해가 커져가고 있고 삶의 환경을 개선시켜주기 위해 새 마을 운동 사역의 일환으로 빌리지 마다 집 건축 및 개량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0채 집 짓기 사역으로 차파타 빌리지에 이어 분다 빌리지 집 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채가 완성되었고 현재 나머지 3채도 한참 건축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때를 잘 맞추어 우기전까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집들을 지어 주거나 개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하루 천둥 번개와 폭우가 내렸는데 수십채가 무너졌습니다. 크지도 않은 작은 마을에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만나는 현지인들의 낙심소리가 커져갑니다.

단계적으로 1년에 10-20채씩 100채 집짓기 사역을 하면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갈까합니다.

- 휘발유파동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오일파동이 말라위의 고질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몇 번 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리도 자주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경제위기가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하여 달러인출금지로 비행기표를 구입할 때 조차도 말라위 화폐로는 구입이 불가하여 US 달러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라위 바깥으로 반출이 금지되어 어떤 이는 공항단속반에 걸려 US2000불을 가지고 나가

다가 재판까지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외환위기로 인해 휘발유를 비축하지 못해 주유소마다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2시간을 길거리에서 기다리면서 세끼를 해결했던 악몽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제부터 제한 판매(1인당30리터)까지 한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더욱이 다음주부터 70여명의 말라위 목회자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취소해야 할 입장입니다. 하루속히 정상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길거리에 멈춰버린 자동차



말라위에서는 10년식의 중고차도 새 차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라위에 도착해서 거의 10년된 차를 구입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제 수시로 고장이 나고 두 달 전에 길거리에서 멈춘 차를 견인하여 정비소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수리를 한다고 하여 엔진수리비를 세차례에 걸쳐 들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이 수리비로 중고차를 살수 있었는데 이차는 그렇게 수리한답시고 거의 두 달 간을 운행을 하지도 못한 채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캐나다 같으면 차가 운행되지 않으면 수리비를 안주어도 될 테 지만 이곳에서는 일단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를 한다음에 운행이 되지 않아도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3가지가 사탄의 역사가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비자 문제와 선교지에서의 동역자간의 문제라고들 합니다.

특히 자동차문제는 선교사의 발에 해당됩니다. 사탄은 선교사의 발을 묶음으로써 사역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기때도 헝거 시즌에도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사륜 구동차를 주님께서 언젠가는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 제자훈련사역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목회자 훈련을 약70여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이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늘 기도하면서 고심하였습니다. 27 시리즈 교재와 새생명훈련 교재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는 교재로도 가르쳐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기성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 교재로 가르쳐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회자 제자훈련 교재를 날마다 영어로 번역하면서 PPT자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번의 목회자 훈련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목회자 훈련의 목표에는 예수님의 사람 6 Chapter와 더불어 40여구절 성경 암송과 전도훈련, 그리고 바울서신 13권을 통독하고자 합니다.

말라위의 여러 곳에서 참여하는 만큼 말라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휘발유파동으로 인해 미니버스가 원활히 운행되지 않는 다는 것과 운임비가 평소의 갑절이상으로 올라 센터까지 쉽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 자동차에도 기름을 구할 수가 없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부득불 연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 고장과 수리의 연속



센터가 안정되려다 보니 설비와 기계들이 정상가동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부터 태양광 설비와 인버터, 그리고 땅에 매설된 전기줄이 물에 잠겨서 전기선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전기줄의 품질이 너무 좋지 않아 한국에서 전기 전문가인 동생이 자비로 두번씩이나 와주어 한번은 번개로 인한 피뢰침시설을 해주었고 이번에는 일체의 전기시설을 새로 다 깔아 주었습니다. 아무리 형제라고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일같이 센터일을 해주어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의 창문 모기망을 새로 작업을 해주어 그동안 늘 불편하게 느낀 아내가 참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김을 다해주는 동생이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떠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0월의 기도제목

1. 8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직업훈련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잘 수료하여 재봉교육을 통해 직업창출을 갖게 하옵소서
2. 새마을운동 집 짓기 사역100채 목표 중에 차파다 마을 10채를 잘 마무리하여 감사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10채 분다 사역도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3. 제자교육 및 옥수수배달에 필요한 차량구입(픽업트럭)을 허락하옵소서.
4. 앞을 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랑기토니 소년의 눈적출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5. 센터내의 모든 시설문제와 고장이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라위 민경화/김홍희선교사드립니다